

영광소방서, 제12대 이관섭 소방서장 취임

“재난·재해 대응 안전한 영광 만들겠다”

이관섭 소방서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직원과 남·녀 의용소방연합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영광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이 서장의 인사와 덕담을 시작으로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품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등 겸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취임 첫날을 시작했다. 이 서장은 전남 영암 출생으로 지난 1988년 소방사로 시작한 후 담양소방서, 전남소방본부장을 거쳐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전남소방본부 예산장비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2022년 2월 소방정으로 승진하여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을 지내다 2023년 1월 1일자로 영광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이 서장은 부드러운 인품을 바탕으로 평소 직원들간의 화합과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고 각종 현장과 행정업무에 탁월해 소방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고 알려져 있다. 이관섭 서장은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해 안전한 영광을 만들겠다”며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소방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시무식 갖고 새해 힘찬 출발

장흥군은 2일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장흥의 도약! 희망의 2023년’ 새 출발을 다짐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성 군수와 실과소장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어머니 품 장흥’의 완성을 다짐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영상 시스템으로 시무식에 함께 했다. 김성 군수는 시무식에 앞서 예약 공연 중훈단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군수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 계획을 밝혔다. 특히, 2023년은 문화·예술·관광의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



각 500만명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4만명 회복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군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책임·섬김 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자연생태공원, 군민 무료입장

함평군민은 올해부터 지역 대표 관광지인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관내 주소를 둔 모든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함평자연생태공원 무료입장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군민에게 거주혜택을 제공하고 함평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함평군 함

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생태공원 무료 입장이 군민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관광지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대동면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이 가능하다. /함평=김용희 기자

화순, 새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속도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상반기 80% 이상 발주·60% 이상 집행 방침

재정집행상황 상시점검 체계 구축...매월 신속집행 실적보고회 개최

화순군이 2023년 계묘년 새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각종 경기불황 지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 요인이 상당한 만큼, SOC·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운용의 효율성까지 함께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화순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은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70%),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활용

해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상반기 8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군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을 중심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정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부서장으로 구성된 신속집행 추진단은 팀별·부서별 목표액을 설정해 매월 신속집행 실적보고회 개최 및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집행실적 부진 부서를 대상으로는 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창평국밥거리 조성 마무리... ‘음식특화 명소’ 기대

창평시장 역사성·전통, 창평슬로시티 등 관광지 인접

담양군이 새로운 음식특화거리인 ‘창평국밥거리’에 대한 새단장을 마쳤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1년 남도음식거리 공모 사업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창평국밥거리에 대한 조성사업을 지난해말 모두 완료했다.

항상시키고자 ▲거리 상징 조형물 ▲주차장 내 소공원 ▲디자인 버스 승강장 ▲포토존 수목벤치 ▲디자인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화장실 외벽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은 음식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공식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도비, 군비 각 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창평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그 역사가 이어오고 있으며, 슬로시티와 함께 담양군 창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군은 사업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이병노 군수는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볼거리, 재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결합한 행사 등을 추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오는 20일까지 신청·접수

나주시는 농업인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2023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사업 분야는 주민소득증가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정책’ (4건), 배 과원 정비 등 ‘배원예유통’ (8건),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진흥’ (3건), 고품질 비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 (9건), 조사료 볶짚 절단기 지원 등 ‘축산분야’ (6건) 등 총 31개 사업을 신청 받는다.

분야별 세부 사업 목록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격(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주소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이면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시는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설 원예 현대화’, ‘축사 주변환경 개선’ 등 30억원 규모 15개 농협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대 시장은 “농정 분야별 자체시책을 통해 농·특산물 생산, 가공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등 선진 농업도시 위상을 드높이고 농업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성준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새해 소통강화 ‘군민과의 대화’ 추진

오늘 진원면 시작... 6일간 11개 읍·면 순회

김한중 장성군수가 새해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장성군은 김한중 군수가 3일 진원면을 시작으로 10일까지 11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경청한다고 밝혔다. 하루 2개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6일에 걸쳐 다수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2023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읍·면별 현안사업 보고에 이어 주민 애도를 적극 청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8기 장성군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목표로 그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군수의 소통 행보 역시 취임 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성=심재식 기자

Advertisement for Jangseong County featuring a scenic lake and mountains. Text includes: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The happiest path I've met on this earth),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The path I always want to go is the path to meet you), and '장성' (Jangseong). Source: [용혜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中]. Logo: 장성군 Jangseong.